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개최일시	2016. 1. 7(목) 11:30~13:30	회의장소	진관 휴게실
참석자 (8명)	서혁(교무처장), 박선기(기획처장), 석인선(학생처장), 조미숙(총무처장), 이외숙(재무처장), 서미옥(예산팀장), 김혜림(대학원 학생회장), 유혜련(안진회계법인 상무)		
불참자 (5명)	최은혜(학부 총학생회장), 이해지(학부 총부학생회장), 노윤아(자연과학대학 공동대표), 심지후(동아리연합회 회장), 허성실(사범대학 공동대표),		
안건	2016년 예산(안) 심의		
내용	<p>□ 개회</p> <p>위원장은 13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8명이 참석하여 회의개최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 후, 제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최하다.</p> <p>□ 회의내용</p> <p>- 위원장은 2016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는 것을 제안하고 재무처의 설명을 요구하다.</p> <p>- 재무처는 등록금 동결을 가정하고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2015년 추경 운영수익과 마찬가지로 2016년 예산 운영수익도 적자임을 언급하면서, 예산 편성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년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16년도에는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다.</p> <p>- 강사법이 시행될 것을 예상하여 시간강의료를 감축시키고 교원급여와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을 증가시켜 예산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p> <p>- 최근 강사법 시행 유예가 발표되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정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재무처에서는 교무팀과 검토하여 조정하겠다고 답하다.</p> <p>- 국가장학금Ⅱ 예산 편성액이 2015년 추경예산보다 감소하여 전체 교외장학금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p>		

- 2015년에는 국가장학금Ⅱ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아 교외장학금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2016년에는 지급 계획이 미정인 상태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다.

- 매년 국가장학금Ⅱ가 변동이 있더라도 평균 수준의 금액을 예산(안)에 반영한 후 추경예산에서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재무처에서는 장학복지팀과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답하다.

- 전문·특수대학원의 등록금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등록금 인상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다.

- 등록금은 동결을 가정하여 편성한 것이고, 전문·특수대학원의 총원률 증가분이 반영되어 등록금수입이 증가한 것이라고 답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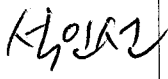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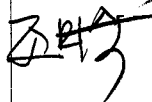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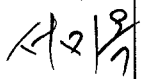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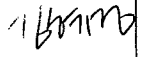

- 외부전문가는 기숙사 및 의과대학 신축으로 건축기금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악화로 일부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예측할 수 있는 비용과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재정 시뮬레이션을 해 볼 것을 제안하다.

- 이미 향후 재정 상황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였으나 경상비를 감축하더라도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 및 예금이자율 하락 등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교육의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다.

-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2016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자 해소 방안 및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다.

□ 폐회

위원장은 3차 회의를 1월 14일(목)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6년 1월 7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서 혁		위 원	박선기		
	위 원	석인선		위 원	조미숙		
	위 원	이외숙		위 원	서미옥		
	위 원	최은혜	불참	위 원	이해지	불참	
	위 원	노윤아	불참	위 원	심지후	불참	
	위 원	허성실	불참	위 원	김혜림		
	위 원	유혜련					
작성 자	예산팀 이 은 정 